

정읍시에 '나리타시' 민간교류단 방문

등록 2011.10.21 17:23:10 | 수정 2016.12.27 22:55:44

【정읍=뉴스시스】김중호 기자 = 전북 정읍시에 21일 자매도시인 일본 나리타시 '한글동호회' 회원들이 방문했다.

오는 22일 열리는 단풍마라톤 대회에 참석키 위해 명예시민 이토 야쓰히로씨와 함께 정읍을 방문한 16명의 회원들은 시청을 찾아 김생기 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.

김 시장은 "일본에도 한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"며 "앞으로도 양국과 양도시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민간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방문단도 "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정읍에 오게돼 마음이 설레고 있다"며 "문화와 역사적인 장벽을 지우고 양국관계가 영원히 친구처럼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"고 화답했다.

나리타시와 정읍시는 2002년 상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매년 중고등학생 교환 홈스테이 등의 민간교류와 함께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꾸준한 국제교류를 펼쳐오고 있다.

seun6685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